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상국



기차역 기다림 방에서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니다. 몸은 생생 건강함대...

고령화사회, 나잇값 하기

많이 볼 수 있다. 마음이 건강한 이들만이 누리고 사는 복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사는 길은 오직 자기 절제의 겸허와 행실의 부...

그막의 비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나이에도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인들의 밝은 얼굴, 어린이 놀이터나 길가에...

나이대접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잇값을 하는 그 즐거움을...

“채근담”에 이런 말이 있다. 젊어서 덕을 쌓지 않으면 늙어 죽을 때 고기 없는 빈...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병은 현재의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마음 불편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로...

나이 먹을수록 마음속에 생기는 갖가지 마음 불편함을 스스로 털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새벽 안개 속에 두부 배달을 하는 등 그

시설

엇박자 대책으로 신종플루 창궐 못 막는다

어제 하루에만 4명이 추가로 숨지는 등 신종플루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신종플루의 1차 방어선인 거점병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치료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은데...

신종플루 확진 환자에 대한 투약 기준이 수시로 바뀌면서 의료진들마저 혼선을 겪고 있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한 데다 환자들의 공포가 커지면서 적절한 치료보다는 투약 위주의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

이 됐다. 여기에 대한사회협회가 ‘한시적인 항바이러스제 원내 조제 허용’ 등을 요구하고 나서...

무엇보다 신규 환자들의 80%가 초·중·고생이나 초등 대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통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학원이다. 휴업으로 학교에서 쉬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원은 ‘감염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를 믿고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기대되는 지자체 간 관광 공동 마케팅

영암·함평·해남군 등 3개 지자체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했다고 한다.

인접한 지자체 간 관광업무 협력을 시의적절하다. 그동안 각 시·군마다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영암과 함평, 해남군에서도 왕인축제, 나비축제, 단풍축제 등 계절에 따라 각종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들 3개 군이 다채로운 연계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로 국립공원 월출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국도 최남단 ‘땅굴’과 ‘다도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과 국민축제로 발돋움한 ‘나비축제’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따라서 3개 군은 단순한 관광업무 협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축제의 공동개최, 다양한 관광 코스 및 상품 개발, 특산품의 공동판매 등 명실상부한 관광산업 공동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용하. 흔히 을죽갑자라거나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말을 쓴다. 앞과 뒤가 뒤바뀌어진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기고 박득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빙하와 만년설이 사라지고, 대양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가 멸치 않은 미래에 전설 속에 사라져간 ‘아틀란티스’의 운명이 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비해 두 배가량 높다. 또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약 569건으로, 전국 평균 444건보다 훨씬 높았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등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의 가능성과 규모를 줄이는 선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제라고 생각된다.

질서의식 정착 시급하다

하더라도 그 근본정신에 대한 동의와 실천의지가 없다면 정착이 안되기 마련이다.

시야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 개최지로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히 혁명적인 시민의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인 질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요란스러운 구호가 난무하고 시책이 주창되는 것은 더구나 공허하다.

광주지역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이 기구를 통해 추진 된 광주교통의 불명예를 씻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자고 다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언필칭 우리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성지라고 한다. 민주와 인권이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남을 존중하는 마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질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않거, 난폭운전 않거, 교통신호 지키기, 방향전환신호등 켜기 등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보행자들은 차체 제지 승하차 하기, 횡단보도 준수하기 등을 실천하고, 상인들은 도로 무단점유와 상품 노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광주는 2008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전(全) 지구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재난관리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만을 중시하는 관행보다는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 교통 무질서 실상은 시·도별 교통사고 현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08년 자동차 1만 대당 사고건수가 무려 156건에 달했고, 전국 평균인 105건의 1.5배 수준으로, 총남 78건에

다며 개선방법을 연구 중이다. 그는 정약속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를 이런 식으로 정치 구호로 삼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한다. 1934년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민총생산) 개념을 처음 개발한 사이먼 쿠즈네츠 전 미 하버드대 교수도 “한나라의 복지 상태는 국

다. 차가 다니는 길로 자전거를 타다 보니 아무래도 보험이 필요했다. 자전거 보험 상품도 나와 있다고 해서 자전거보험 담당자를 만났다. 그런데 보험에 내 자전거가 파손된다는 거. 그런 건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차체파손시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이해가 안 됐다.

그리고 요리를 하다 보면 참기름이나 기타 양념, 소스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 중에 용기는 유리나 철로 만들어지고, 뚜껑이나 마개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다.

심지어 보험회사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남는 것도 없는데 정부에서 하라니까 억지로 보험을 만들었다는 식이었다. 솔직히 보험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자기네 이익만 생각해 자전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군다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해 처벌도 작지 않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자전거 보험 차체보상 빠져 반쪽짜리 전략

▲주현·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녹색방재도시 광주 만들기

표면온도는 섭씨 1.8~4.0도까지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대 59cm까지 높아져 폭우, 가뭄, 폭염 등이 빈번하여 인류에 재앙과도 같은 위기가 닥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부와외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 협약체결을 통해 2015년까지 2005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인 66만1천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고, 탄소은행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면 감축량을 현금처럼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全) 지구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재난관리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만을 중시하는 관행보다는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양념통 용기 등 분리수거 쉽게 제조했다면

제거하기가 위험하고 어렵다. 일본에서는 참기름 같은 유리용기의 플라스틱 마개는 갈집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홈을 새로로 하나 내 두어 안전하고 손쉽게 분리 수거가 가능하고, 제품용기를 둘러싼 비닐에도 새로로 점선을 두어 용기와 비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2만 달러 소득론’이 유행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선진국 문턱을 뛰어 넘어야 한다”며 기필코 GDP 혹은 이와 유사한 개념인 GNI (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는 부가가치의 거대한 덩어리 뿐이어서다. 복지 수준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 철이나 석유를 채취하면 매장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빼야 하지만, GDP에는 별셈이 없다. 반대로 삶의 질을 낮추게 하는 교통사고나 태풍은 GDP를 늘릴 수 없다. 최근들어 GDP의 남용을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이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다. 그는 GDP 지표가 복지 지표와 혼동돼 왔으며 개선방법을 연구 중이다. 그는 정약속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를 이런 식으로 정치 구호로 삼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한다. 1934년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민총생산) 개념을 처음 개발한 사이먼 쿠즈네츠 전 미 하버드대 교수도 “한나라의 복지 상태는 국

민 소득의 합계에서 추정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쯤이면 자전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타기이니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차체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